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4. Vol. 29, No. 5, 765 - 785

불안정 애착유형과 SNS정서전염이 간접외상에 미치는 영향: 10.29(이태원)참사를 중심으로

최 재 광
대구교육대학교
강사

김 해 솔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졸업

신 은 미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

송 원 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이 연구는 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10.29 참사와 관련된 SNS정보를 접촉하였을 때 애착유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전염과 간접외상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접외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성인 211명을 대상으로 애착유형, SNS정서전염, 10.29 참사로 인한 간접외상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애착불안은 SNS정서전염, 간접외상과의 관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지만, 애착회피는 SNS정서전염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간접외상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애착유형에 따른 간접외상과의 관계에서 SNS정서전염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애착불안은 SNS정서전염을 통해 간접외상의 수준 증가와 관련이 있었고, 높은 애착회피는 SNS정서전염과 간접외상의 수준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 이는 애착불안이 높은 개인은 SNS를 통해 외상사건을 접한 이후 정서에 전염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간접외상을 경험할 수 있지만, 애착회피의 경우 SNS를 통한 외상에 접촉하여도 관련된 정서를 회피하여 SNS정서전염과 간접외상의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10.29 참사 뿐 아니라, SNS를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재난과 관련하여 간접외상을 경험하는 사람에 대한 예방 및 심리치료적 개입 근거로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애착불안, 애착회피, SNS정서전염, 간접외상, 10.29(이태원) 참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송원영, (32992)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Tel: 041-730-5414, E-mail: 1058@paran.com

www.kci.go.kr

우리 사회에는 크고 작은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홍수, 지진, 태풍과 해일, 가뭄 등과 같은 자연 재난과 테러, 붕괴, 침몰, 추락 등의 인적 재난들은 사회 전반의 안전과 더불어 개인의 정신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다(Goldmann & Galea, 2014).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10.29 참사는 사상자가 355명에 달하였고, 개인과 국가에 심각한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현대 사회의 전송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다양한 SNS를 통해 사건 현장이 실시간으로 여과 없이 공유되었다는 점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10.29참사 통합심리지원단의 상담 지원 자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은 사람 중 약 33%는 각종 미디어와 SNS를 통해 참사를 접한 일반 국민이었다(곽진산, 2022). 사고 장면을 실제로 경험 및 목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참사 장면에 노출된 사람들 또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것이다. 실제로 10.29 참사 이후 국내 여러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의 심리·정서적 충격을 우려하여 재난에 대한 세밀한 정보 노출을 자제해달라는 성명문을 발표하는 등 트라우마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재난 사건에 대한 미디어 노출에 대한 우려는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증대하기 시작하였는데, 테러 사건 이후 TV를 통해 사건에 간접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의 44%가 하나 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Schuster et al., 2001).

사람들은 처참하고 생생한 사고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를 간접외상(indirect trauma)이라고 한다. 간접외상은 가족 및 가까운 지인에게 충격적인 외상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인지 혹은 목격하거나 이들과 반복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부적응적인 영향을 의미한다(Figley, 1995; Gottfried, 2010). 간접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일으킨다. 간접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은 과각성, 재경험, 사건에 대한 침습적 사고, 자살사고, 수면장애와 같이 PTSD와 관련된 증상들이 있다(손승희, 2014; Palm, Polusny, & Follette, 2004; Suvak, Maguen, Litz, Silver, & Holman, 2008). 이 증상들은 재난 이후 일상으로의 회복을 매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정서 문제에도 취약해질 수 있는 심각한 혼란을 야기한다(이동훈 외, 2020; 이재식, 2019; Palm et al., 2004; Zimering, Gulliver, Knight, Munroe, & Kean, 2006). 재난은 종종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공포 분위기, 무질서한 사회정체감 및 사회관계망의 붕괴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Basoglu & Salcioglu, 2011; Boscarino, Adams, Figley, Galea, & Foa, 2006; Mawson, 2005). 따라서 외상사건에 대한 간접경험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접적인 외상 경험만큼이나 중요하다. DSM-5에서는 각종 SNS와 미디어에 노출된 일반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 및 부적응에 대해서는 진단에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4), 대부분 간접외상에 대한 연구들은 소방관, 경찰, 트라우마 전문가 등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 이를 접하게 되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왔다(Bell,

www.kci.go.kr

1995; Gottfried, 2010; Kadambi & Ennis, 2004).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국내의 연구자들은 재난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나 간접적인 형태로 경험한 일반인들 또한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문윤선, 2014; 박노일, 장석환, 정지연, 2018; 박동혁, 2017). 이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이라는 용어로 명명되었고, 연구자들은 일반 시민들이 재난이 벌어졌다는 것을 여러 매체와 보도를 통해 접하거나 주변인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간접외상을 경험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허연주, 이민규, 2017). 재난에 대한 정보 노출이 우울 및 불안, 급성 스트레스, 불면, 자살사고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낸 연구는 다수이다(박상의, 정유지, 이정현, 2018; 이홍표 외, 2016; Schlenger et al., 2002; Slone, Shoshani, & Baumgarten-Katz, 2008). 이는 재난 현장에 없었던 일반인들 또한 간접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명백히 경험하고 호소함을 의미하며, 적절한 예방 및 개입을 위해서는 발생과 지속의 기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간접외상을 야기하는 성격적인 원인은 다양한데, 사람들은 같은 외상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누군가는 외상 후 스트레스의 증상을 경험하지 않거나, 고통의 강도를 저마다 다르게 호소하기도 한다(DePrince & Chu, 2008).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으로써 애착 유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착이란, 개인이 자신과 가까운 대상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하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말한다(Bowlby, 1958). 사람들은 어린 시절 주양육자와 반복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의미, 개념, 이미지, 정서 등의 심리적 표상을 갖게 된다(Bowlby, 1988). 이렇게 형성된 애착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착 유형에 따라 외상의 심각성 수준이 달라지거나 외상 사건에 대해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이 보고되었다(Mikulincer, Shaver, & Horesh, 2006; Mikulincer, Shaver, & Solomon, 2015; Woodhouse, Ayers, & Field, 2015).

애착의 유형은 여러 학자마다 다르게 구분하고 있으나, 크게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구분할 수 있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안정애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이고, 관계 내에서 정서적인 편안함을 갖으며, 불안정애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이 비일관적으로 혼재되어 타인과 과도하게 가까워지려 하거나 거부하게 된다. 불안정애착은 거부 또는 버림받는 것에 두려움을 반영하는 애착불안과, 의존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애착회피로 다시 구분된다(Ainsworth, 1989). 중요한 타인과 불안정한 정서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며, 정서에 대한 대처방식을 다르게 형성하기도 한다(Mikulincer & Florian, 2003; Mikulincer et al., 2001). 예를 들면, 애착불안 유형의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더욱 강렬한 정서를 경험하거나 표현하는 대처방식을 갖고 있으며, 애착회피 성향의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에 대한 접촉을 회피하면서 정서적으로 단절해버리는 대처방식을 취한다(Mikulincer, 1998). 이를 정서에 대한 과잉활성화 대처방식과 비활성화대처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

www.kci.go.kr

다. 애착회피의 경우, 과거 중요한 타인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관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철수하기 때문에 타인과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Fraley & Shaver, 1998; Shaver & Millkulincer, 2009). 따라서 정서를 강하게 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들은 정서적 비활성화대처방식을 사용하여 타인과의 정서적 접촉을 회피하고 단절시켜 타인의 반응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Mikulincer et al., 2001). 반면, 애착불안의 경우 방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Fraley & Shaver, 1998)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정서를 과도하게 활성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과잉활성화대처방식을 보인다(Wei, Russell, & Zakalik, 2005). 이 경우 타인과 정서적으로 가깝게 밀접되고자하며, 타인의 여러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Mikulincer et al., 2001; Wei, Vogel, Ku & Zakalik, 2005)

애착 유형은 개인이 타인의 정서에 대한 반응의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민감하게 반응할지,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지 선택하게 된다(Kafetsios, 2004). 이 경향성은 타인의 정서로 인해 자신의 정서가 달라질 수 있는 정서전염과 관련이 높다(Borawski, 2021). 높은 불안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정서가 전염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며, 높은 애착회피 수준을 보이는 사람들은 정서가 전염되기보다는 더 많은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Parcon, 2017). 즉, 애착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거절하거나 떠날까봐 불안해하기 때문에 타인의 정서에 민감하며,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들은 정서적 경험을 회피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정서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이다(Mikulincer et al., 2001). 정서전염(Emotional contagion)은 자기와 타인의 정서가 서로 전이되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Hatfield et al., 1994). 정서전염은 우울, 불안, 분노, 슬픔 및 기쁨 등 다양한 정서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모르는 이들의 정서에도 쉽게 정서가 전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Joiner, 1994; Doherty et al., 1995; Hsee et al., 1999). 이는 SNS를 통해서도 정서가 전이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Kramer et al., 2014; Wilkerson, 2009), IT기술과 통신매체의 비약적인 발달에 따라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SNS로부터 일어나는 정서전염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사건, COVID-19, 10.29참사와 같은 재난 소식들 역시 SNS를 통해 적나라하고 무분별하게 접하는 것은 부정정서에 대한 정서전염을 일으킬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Coviello et al., 2014; Goldenberg & Gross, 2020). 이렇게 전이된 부정적인 정서들은 곧 심리적 충격을 일으키고, 간접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Branson, 2019; Feldman & kaal, 2007).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전염은 애착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서전염은 SNS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재난과 같은 끔찍한 사건에 대한 SNS정서전염은 간접외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SNS를 통한 정서전염과 간접외상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국외에서는 미디어 노출 또는 SNS를 통한 심리적 외상에 대한 문제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Carlson et al., 2017;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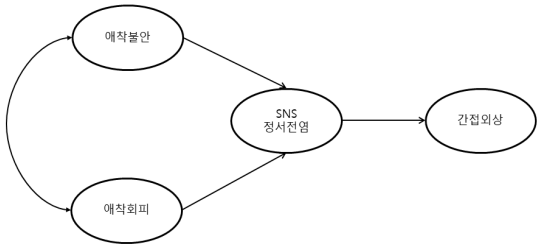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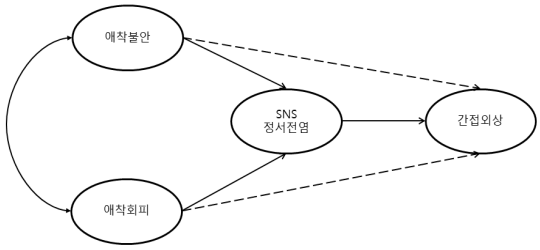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Mahamid, 2020). 또한, 이들의 발생 기제와 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재난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외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10.29참사를 중심으로, 재난 사건이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됨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의 정서 경험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그 경로에서 애착과 SNS정서전염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불안정 애착과 외상경험은 정서를 중심으로 심리적 특성이 발현될 뿐만 아니라 간접외상의 경우 일반적인 외상과 달리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서적 반응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SNS 정서경험이 불안정 애착과 간접외상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가정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은 완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그림 2에 제시한 경쟁모형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은 소셜 미디어 정서전염, 정서전염과 정적상관을 가질 것이다.

둘째. 애착회피는 소셜 미디어 정서전염, 정서전염과 낮은 부적상관을 가질 것이다.

셋째. 소셜 미디어 정서점염은 애착불안과 정서전염과의 관계를 매개하지만 애착회피와의 관계에서는 매개하지 않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22년에 발생한 10.29참사 3개월 후인 2023년 02월 04일에 시작하여 2023년 02월 23

www.kci.go.kr

일까지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사방식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은 중부권 대학을 방문하여 20명의 대학생을 무작위 표집을 하였고, 20명의 참여자에게 설문을 설명하고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온라인은 대학, 지역사회 커뮤니티, SNS에 연구참여를 위한 안내문과 함께 설문 URL을 제시하여 홍보하였고, Google 설문지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며, 19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이 진행되기 전 오프라인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윤리에 대해 설명하였고, 온라인의 경우 설명문을 설문문항이 시작되기 전에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에게만 진행하였고, 총 212명의 성인에게 설문을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조사는 설문이 완료된 이후 연구자가 무응답 여부를 확인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온라인 조사는 무응답이 보고되었을 때 무응답 알림 메시지를 전달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집된 설문의 10%이상 무응답으로 응답한 대상과 모든 질문에 동일한 응답으로 보고한 경우를 분석제외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부합한 212명의 설문을 모두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성 60명(28.3%), 여성 152명(71.7%)이었고, 나이는 20대 154명(72.6%), 30대 24명(11.3%), 40대 16명(7.5%), 50대 18명(8.5%)이었다. 하루 평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시간을 확인한 결과 1시간 미만 32명(15.1%), 1~4시간 미만 118명(55.7%), 4~7시간 미만 48명(22.6%), 7시간 이상 14명(6.6%)으로 나타났고, 사용시간에 따른 SNS 정서전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측정도구

친밀한 관계경험 척도(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 Scale: ECRS). 이 연구에서는 Brennan, Clark과 Shaver(1998)이 개발하고 Fraley, Brennan과 Waller(2000)이 수정한 이후 김성현(2004)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친밀한 관계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ECRS는 애착불안 18개 문항, 애착회피 문항 18,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1점에서 7점으로 구성된 리커트 형식의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36점 ~ 252점의 점수로 분포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확인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애착불안이 .89, 애착회피가 .85로 나타났고, 이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는 애착불안이 .92, 애착회피는 .90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정서전염척도 (Social Media Emotional Contagion Scale: SECS).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서전염을 측정하기 위해 이찬주 등(2022)이 개발하고 타당화 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SECS는 긍정적인 정서의 전염과 부정적인 정서의 전염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총 18개이며, 하위척도에 따라 각각 9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SECS는 1점에서 5점으로 평정하는 리커트 형식의 척도이고, 10점 ~ 50점의 점수로 분포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서전염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찬주 등(2022)의 연구에서 나타난 SECS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고, 이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척도(The Indirect Trauma Scale of Social Disaster: ITSSD). 이 연구에서는 간접외상을 측정하기 위해 허연주(2016)가 개발 및 타당화한 ITSSD를 사용하였다. ITSSD는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사건을 매체를 통해 반복적 노출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심리 및 행동적 부적응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이다. ITSSD는 4개의 하위유형과 총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0점에서 4점으로 응답할 수 있는 리커트 형식의 척도로 평정되고, 17점 ~ 68점의 점수로 분포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접외상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재난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제안하여 설문을 조사하였으며, "본 설문은 2022년에 발생한 10.29 참사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한 이후 당신이 느끼고 생각한 것을 잘 나타내는 번호에 체크해주세요."라는 안내를 제시하였다. 허연주(2016)의 연구에서 측정된 간접외상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5였고, 이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자 SPSS 23.0과 AMOS 21을 활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주요변인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설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랩핑(Bootstraping)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1. 애착불안	-			
2. 애착회피	.18**	-		
3. 소셜미디어 정서전염	.38***	-.18**	-	
4. 간접외상	.32***	-.08	.55***	-
평 균	56.48	67.66	38.47	48.12
표준편차	18.85	16.62	10.75	14.60
왜 도	0.18	0.19	0.15	-0.24
첨 도	-0.59	-0.28	-0.55	-0.40

주. $^{**}p<.01$, $^{***}p<.001$.

www.kci.go.kr

결 과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활용하여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첫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매우 낮은 상관이 확인되었다(r=.18, p<.01). 둘째, 애착의 유형에 따라 변인들 간의 관계의 방향이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애착불안의 경우 소셜미디어 정서전염(r=.38, p<.001), 간접외상(r=.32, p<.001)과 정적상관이 보고된 반면, 애착회피의 경우 부적상관이 확인되었고, 소셜미디어 정서전염과는 매우 낮은 상관(r=-.18, p<.01)이 나타났고, 간접외상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r=.08, *NS*). 산출된 Pearson 상관분석 결과와 각 변인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고, 주요변인의 하위요인을 포함한 자세한 상관분석 결과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히 측정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간 추정치와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의 잠재변인은 총 4개(애착불안, 애착회피, SNS 정서전염, 간접외상)이며, 불안정 애착의 경우 하위요인을 구분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여 요인을 구성하였다.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측정변수의 추정치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TLI (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표 2.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CR*
		B	*SE*	(β)	
애착불안	애착불안1	1.00	-	.92	-
	애착불안2	2.14	.22	.64	9.55***
	애착불안3	2.02	.17	.80	12.07***
애착회피	애착회피1	1.00	-	.72	-
	애착회피2	.97	.12	.62	8.22***
	애착회피3	1.06	.12	.64	8.48***
	애착회피4	1.09	.11	.87	10.26***
SNS 정서전염	긍정적 정서전염	1.00	-	.65	-
	부정적 정서전염	1.37	.15	.92	8.15***
간접외상	가해	1.00	-	.73	-
	불신	.74	.08	.57	9.06***
	증상	1.19	.11	.77	10.45***
	대응	2.35	.21	.86	11.22***

주. ***p<.001.

www.kci.go.kr

Approximation)를 활용하였다. TLI와 RMSEA는 표본 크기에 덜 영향을 받고 모델의 간명성까지 고려한 적합도 지수이다(배병렬, 2017; Hooper, Coughlan, & Mullen, 2008). 표 3에 제시된 TLI와 CFI는 .90이상의 값을 좋은 수준으로 보고, RMSEA는 .10이하를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로 해석한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Steiger, 1990). 이 연구에서 확인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LI=.90, CFI=.93, RMSEA=.08로 양호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구조모형 검증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SNS정서전염을 통해 간접외상을 예측하는 관계모형을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 4에 제시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가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경우 χ^2=153.21(61), p<.001로 나타났고, TLI=.90, CFI=.92, *RMSEA*=.09로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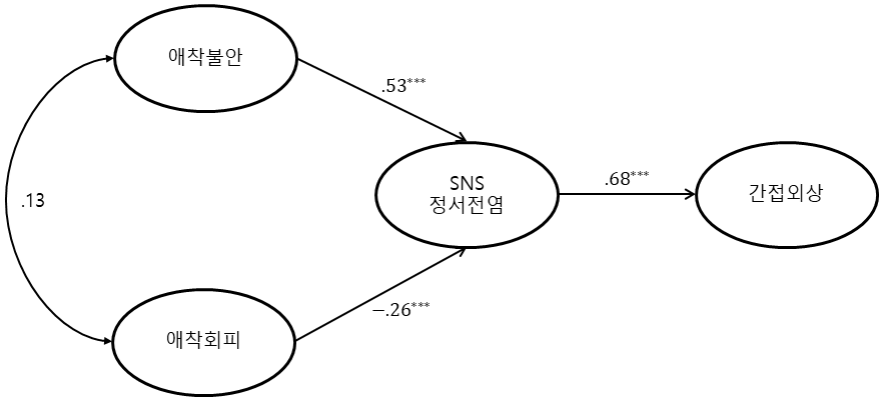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

주.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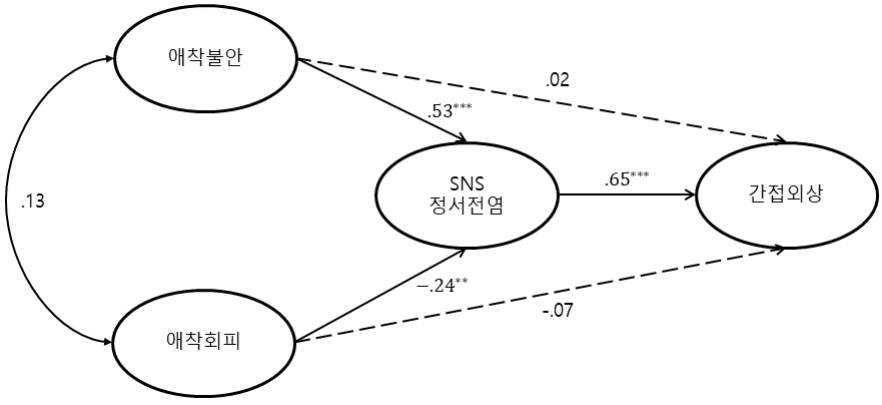


그림 4. 경쟁모형

주. **p<.01, ***p<.001.

www.kci.go.kr

나타났다. 경쟁모형은 χ^2=152.50(58), p<.001로 나타났고, TLI=.89, CFI=.92, RMSEA=.09로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타당한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의 경로를 살펴보면, 그림 3에 제시된 연구모형의 경우 매개변인인 SNS 정서전염은 독립변인인 애착불안이 정적영향(β=.53, p<.001)을 애착회피는 부적영향(β=-.26, p<.001)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매개변인인 SNS정서전염과 종속변인인 간접외상과의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β=.68, p<.001). 그림 4에 제시된 경쟁모형 경우 독립변인인 애착불안(β=.53, p<.001)과 애착회피(β=-.24, p<.01)이 매개변인인 SNS 정서전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인 간접외상에 미치는 영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65, p<.01). 하지만 애착불안(β=.02, *NS*)과 애착회피(β=-.07, *NS*)가 간접외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완전매개와 동일한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적합도에서도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χ^2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지수에서는 모두 적합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우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과 *df*의 차이를 비교하여 비교적 간명한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게 된다. 유의한 차이는 자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구분	χ^2(*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모형	140.84(57)***	.90	.93	.08(.07, .10)

주. ***p<.001.

표 4.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연구모형 (완전매개)	153.21(61)***	.90	.92	.09(.07, .10)
경쟁모형 (부분매개)	152.50(58)***	.89	.92	.09(.07, .11)

주. ***p<.001.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CR*
		B	*SE*	(β)	
애착불안	SNS 정서전염	1.26	.18	.53	6.95***
애착회피	SNS 정서전염	-1.67	.48	-.26	-3.50***
SNS 정서전염	간접외상	.77	.10	.68	7.95***

주. ***p<.001.

www.kci.go.kr

표 6. 연구모형의 효과 분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애착불안	→	간접외상	-	.36***	.36***
애착회피	→	간접외상	-	-.18**	-.18**

주. **p<.01, ***p<.001.

표 7. 연구모형 간접효과의 부트스트랩 결과

경로					비표준화계수 (B)	표준화계수 (β)	Bootstrap (Low~Up)
애착불안	→	SNS 정서전염	→	간접외상	.98***	.36***	.18 ~ .56
애착회피	→	SNS 정서전염	→	간접외상	-1.29	-.18	-.39 ~ .01

주. ***p<.001.

유도 1을 희생했을 때 χ^2의 차이는 3.84이며(이순묵, 1990), χ^2의 차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경로가 단순한 모형인 연구모형을 채택할 수 있게 된다. χ^2값과 자유도(df)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triangle\chi^2 = \chi_s^2 - \chi_t^2$$
$$\triangle df = df_s - df_t$$

이 연구에서는 Δdf은 3에 따라 $\Delta\chi^2$은 0.71로 희생된 자유도에 비해 χ^2의 차이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모형이 경쟁모형보다 더 간명하여 최종모형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과 7에 나타낸 연구모형의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애착불안이 SNS정서전염을 매개하여 간접외상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정적으로 유의하였고(β=.36, p<.001), 애착회피가 SNS정서전염을 매개하여 간접외상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는 부트스트래핑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았다(β=-.18, *NS*). 결과적으로 애착불안과 간접외상과의 관계를 SNS정서전염을 매개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논 의

이 연구는 재난 사건에 대한 정보가 SNS를 통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서전염과 간접외상이 발생하는 심리적 기제를 검증하기 위해 애착유형, SNS정서전염, 간접외상을 측정하고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 SNS정서전염, 간접외상과의 관계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애착회피는 SNS정서전염, 간접외상과의 관계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애착불안의 수준이 높아질 때 SNS정서전염과 간접외상의 수준이 함께 상승할 수 있

www.kci.go.kr

지만 애착회피는 그 수준이 높아질 경우 SNS정서전염과 간접외상은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은 애착유형에 따른 감정의 활성화가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애착불안은 감정에 대한 과잉활성화 전략을 사용하지만(Mallinckrodt & Wei, 2005) 애착회피는 감정에 대해 비활성화 전략을 사용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겠다(Dozier & Kobak, 1992). 즉 애착불안 유형의 경우 유기에 대한 두려움과 같이 정서에 민감한 반면(Fraley & Shaver, 1998; Wei, Vogel et al., 2005), 애착회피 유형은 정서적 고통을 차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서를 알아차리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Parcon, 2017; Stevens, 2014). 따라서 애착불안은 정서에 과잉활성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SNS를 통해 접하게 된 부정적인 정보를 정서전염과 간접외상과 높은 상관을 가지게 되며, 반면 애착회피는 정서에 비활성화 즉, 정서를 철회하는 대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낮은 상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애착유형에 따라 SNS정서전염과 간접외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이라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매개모형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애착불안은 SNS정서전염을 통해 간접외상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정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애착회피의 경우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은 SNS를 통해 접촉한 정서적 반응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외상을 직접경험하지 않아도 실제로 경험한 것과 같은 감정이 SNS를 통한 간접경험으로 유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은 감정인식 및 표현에 취약하여 정서를 회피하는 특징을 가지는데(Parcon, 2017), 이는 오프라인에서 경험되는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SNS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 경험되는 정서적 상호작용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정서적 차단은 SNS를 통한 정서전염을 회피하여 간접외상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애착불안은 정서에 대한 취약성으로 SNS로 전달되는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간접외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애착회피의 경우 정서에 대한 회피적인 태도가 SNS 정서전염과 간접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에서 확인된 애착회피와 간접외상과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상으로 인한 감정과 고통을 차단하였을 때, 결국 회복을 방해하는 등 해로운 영향을 미쳐 외상경험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가능성을 제한한다는 보고가 있다(Woodhouse, Ayers, & Field, 2015). 이러한 결과는 애착회피가 SNS정서전염과 간접외상을 낮추는 요인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애착회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SNS를 통해 전염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인지적으로 억압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일 뿐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Clear, Gardner, Webb, & Zimmer-Gembeck, 2020; Read, Clark, Rock, & Coventry, 2018). 따라서 애착회피 및 SNS정서전염과 간접외상과의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SNS로 접한 심리적 충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거나 예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결과는 간접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 개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022년 10월 한국에서 발생한 10.29 참사 이후 사건과 관련된 사진,

www.kci.go.kr

동영상 등을 SNS를 접촉한 이후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증상 발현에 취약한 사람은 애착불안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외상을 직접 목격하지 않아도 SNS를 통한 정서전염이 간접외상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이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SNS는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를 실시간으로 접촉할 수 있는 수단임을 고려할 때, 이 접근성이 부정적인 정서를 전염시키고 외상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은 중요한 발견이다.

SNS를 통해 발생하는 간접외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방 및 심리치료 차원의 개입이 있고, 간접외상의 수준에 따라 다른 방식의 개입을 진행할 수 있겠다. 먼저 예방차원의 개입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안전한 정보를 식별하고 유익하고 건강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SNS에 공유되는 외상사건과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 정보는 정제되지 않은 현장을 경험하게 하며, 이는 충격적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노출돌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난과 관련된 미디어 노출은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이끄는데 충분했고(Hopwood & Schutte, 2017), 집단적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결과도 확인되었다(Holman, Garfin, Lubens, & Silver, 2020). 따라서 SNS 등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여 충격적인 정보를 안전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실제로 테러 위험과 관련된 미디어에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 불안과 같은 정서가 확인되었지만, 부모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 간접적으로 접한 외상사건에 대한 위협인식 및 불안의 정도가 낮았다(Comer, Furr, Beidas, Weiner, & Kendall, 2008). 따라서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SNS정서전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외상의 위협을 낮출 수 있다.

다음으로 심리치료 차원의 개입에는 안전기반치료(Seeking Safety)와 인지처리치료(Cognitive Processing Therapy: CPT)가 있다. 먼저 안전기반치료는 PTSD에 대해 효과가 강력한 치료로 소개되고 있고(Najavits, 2007), 정상화(Normalization)를 중요한 치료과정으로 설명한다. 외상으로 인한 강렬한 감정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압도당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자동적이고 신경생리학적인 반응일 수 있다(Bracha, 2004). 즉 강렬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당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PTSD환자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감정을 당연한 감정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Najavits, 2009). SNS를 통해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 당연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인지처리치료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PTSD에 대한 효과가 검증된 심리치료이며, 간접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수준이 증가한다면 CPT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SNS로 전염되는 정서를 적응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간접외상의 수준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CPT에서는 외상사건의 원인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수정하여 PTSD의 증상을 조절한다(Scott et al., 2010; Solomon, Mikulincer, & Benbenishty, 1989). 외상의 원인을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나 운으로 해석하기보다 개인의 생각이나 정서 등 비교적 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회복에 효과적

www.kci.go.kr

이라는 것이다(Karstoft, Armour, Elklit, & Solomon, 2015; Keenan & McBain, 1979). 따라서 SNS를 통해 받아들인 부정적인 감정이나 경험에 대한 사고과정을 탐색하고 부정적인 사고패턴을 변화시키거나 사건에 대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통제감을 도모하는 CPT가 SNS정서전염을 통한 간접외상의 수준은 낮추는 대안적 개입이 될 수 있겠다.

이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가진 임상군을 포함하지 않아 결과를 임상군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간접외상은 PTSD 증상이 뚜렷한 임상군보다 일반인에 초점이 맞춰진 개념이다. 특히 SNS 정서전염을 통해 발생하는 간접외상은 전 세계의 모든 인구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일반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가 PTSD수준의 증상을 보고하는 임상군에게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적용 가능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여 설문에 대한 저항이나 방어를 통제하지 하였고, 횡단적 조사를 진행하여 시간에 지남에 따라 나타나는 변인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타인보고, 면담, 실험연구 등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종단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SNS를 통한 정서전염과 간접외상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는 온라인이나 간접적인 접촉이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는데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외상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연구대상의 특징을 탐색한 기존 외상연구와 차별점이 될 수 있다. 기존 외상연구에 따르면 외상에 노출된 시간이나 빈도에 따라 스트레스의 수준이 증가될 수 있다. 이는 온라인이나 간접적인 외상접촉도 노출 시간이나 빈도의 정도에 따라 간접외상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SNS 사용 빈도를 측정하였지만 SNS를 통한 외상사건 노출의 빈도나 시간을 측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SNS를 통한 외상사건 노출 정도에 따른 연구모형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SNS를 통한 외상사건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여 시간 등간별 동일한 수의 표본을 표집하여 시간을 통제한 가설검증이나, 시간에 따른 군집들의 차별적 분석이 진행된다면 연구가설을 다차원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곽진산 (2022년12월26일). 이태원 심리상담 44%가 '그날 그곳 생존자'…정부 찾는 노력 필요.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3113.html

문윤선 (2014). 대형인명사고로 인한 간접적 외상이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와 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노일, 장석환, 정지연 (2018). 미디어 이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9(4), 673-683.

박동혁 (2017). 재난뉴스 이용이 간접외상에 미치는 영향: 세월호 뉴스 이용에 따른 정상집단과 외상집단 비교.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www.kci.go.kr

박상의, 정유지, 이정현 (2018). 미디어 노출에 의한 간접외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설문 조사 연구. 대한불안의학회지, 14(2), 71-79.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손승희 (2014). 사회적 사건에 의한 청소년의 간접외상 및 관련요인 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0), 269-294.

이동훈, 김예진, 이덕희, 황희훈, 남슬기, 김지윤 (2020).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감염 일반대중의 두려움과 심리, 사회적 경험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2119-2156.

이재식 (2019). 사회적 재난에 의한 간접외상 경험에서의 개인차: 안전 통제소재와 안전 효능감의 상호작용 효과.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1*(6), 3179-3194.

이찬추, 박주은, 신하영, 최상민, 서동기, 김재금 (2022). 소셜미디어 정서전염척도(SECS)의 개발 및 타당화: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 22(7), 583-598.

이홍표, 최윤경, 이재호, 이홍석 (2016). 세월호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 외상의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411-430.

허연주, 이민규 (2017).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3), 381-407.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4). *Desk reference to the diagnostic criteria from DSM-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

Ainsworth, M.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Basoglu, M., & Salcioglu, E. (2011). *A mental healthcare model for mass trauma survivors: Control-focused behavioral treatment of earthquake, war and torture traum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ll, J. L. (1995). Traumatic event debriefing: Service delivery designs and the role of social work. *Social Work, 40*(1), 36-43.

Borawski, D., Wajs, T., Sojka, K., & Misztal, U. (2021). Interrelations between attachment styles, emotional contagion and loneli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42*(9), 2064-2082.

Boscarino, J. A., Adams, R. E., Figley, C. R., Galea, S., & Foa, E. B. (2006). Fear of terrorism and preparedness in New York City 2 years after the attacks: implications for disaster planning and research. *Journal of Public Health Management and Practice, 12*(6), 505-513.

Bowlby, J. (1958). *Can I leave my baby?*. London: National Association for Mental Health.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racha, H. S. (2004). Freeze, flight, fight, fright, faint: Adaptationist perspectives on the acute stress response spectrum. *CNS Spectrums, 9*(9), 679-685.

Branson, D. C. (2019). Vicarious trauma, themes in research, and terminology: A Review of Literature. *Traumatology, 25*(1), 2-10.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rgrative overview. In J. A. Sim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The Guilford Press.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Carlson, B. L., Jones, L. V., Harris, M., Quezada, N., & Frazer, R. (2017). Trauma, shared recognition

www.kci.go.kr

and indigenous resistance on social media. Australasi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1, 1-18.

Clear, S. J., Gardner, A. A., Webb, H. J., & Zimmer-Gembeck, M. J. (2020). Common and distinct correlates of depr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of sadness and anger.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7*, 181-191.

Comer, J. S., Furr, J. M., Beidas, R. S., Weiner, C. L., & Kendall, P. C. (2008). Children and terrorism-related news: training parents in Coping and Media Liter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4), 568-578.

Coviello, L., Sohn, Y., Kramer, A. D. I., Marlow, C., Franceschetti, M., Christakis, N. A., & Fowler, J. H. (2014). Detecting emotional contagion in massive social networks. *PLoS ONE, 9*(3), e90315. doi.: 10.1371/journal.pone.0090315

DePrince, A. P., & Chu, A. (2008). Perceived benefits in trauma research: Examining methodological and individual difference factors in responses to research participation. *Journal of Empirical Research on Human Research Ethics, 3*(1), 35-47.

Doherty, R. W., Orimoto, L., Singelis, T. M., Hatfield, E., & Hebb, J. (1995). Emotional contagion: Gender and occupational differenc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3), 355-371.

Dozier, M., & Kobak, R. R. (1992). Psychophysiology in attachment interviews: Converging evidence for deactivating strategies. *Child Development, 63*(6), 1473-1480.

Feldman, D. B., & Kaal, K. J .(2007). Vicarious Trauma and Assumptive Worldview in Acquaintances of Trauma Victims. *Traumatology, 13*(3), 21-31.

Figley, C. R. (1995). Systemic traumatization: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family therapists. In R. H. Mikesell, D.-D. Lusterman, & S. H. McDaniel (Eds.), *Integrating family therapy: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and systems theor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Fraley, R. C., & Shaver, P. R. (1998). Airport separations: A naturalistic study of adult attachment dynamics in separ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5), 1198-1212.

Greene, C. M., & Murphy, G. (2020). Individual differences in susceptibility to false memories for COVID-19 fake news. *Cognitive Research: Principles and Implications, 5*(1), 1-8.

Goldmann, E., & Galea, S. (2014).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disasters.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35*, 169-183.

Goldenberg, A., & Gross, J. J. (2020). Digital emotion contag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24*(4), 316-328.

Gottfried, V. M.. (2010), *Indirect trauma syndrome: Empirical validation of a Model that synthesizes secondary and vicarious trauma*. Kentucky: University of Louisville.

Hatfield, E., Cacioppo, J. T., & Rapson, L. R. (1994). *Emotional contag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lman, E. A., Garfin, D. R., Lubens, P., & Silver, R. C. (2020). Media exposure to collective trauma, mental health, and functioning: does it matter what you see?.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8*(1), 111-124.

www.kci.go.kr

Hooper, D., Coughlan, J., & Mullen, M. (2008, September). Evaluating model fit: a synthe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literature. In 7th European Conference on research methodology for business and management studies(pp. 195-200). Washington, D.C.: Academic Conferences.

Hopwood, T. L., & Schutte, N. S. (2017). Psychological outcomes in reaction to media exposure to disasters and large-scale violence: A meta-analysis. *Psychology of Violence, 7*(2), 316-327.

Hsee, Ch. K., Hatfield, E., Carlson, J. G., & Chemtob, C. (1990). The effect of power on susceptibility to emotional contagion. *Cognition and Emotion, 4*(4), 327-340.

Joiner, T. E. (1994). Contagious depression: Existence, specificity to depressed symptoms, and the role of reassurance see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2), 287-296.

Kadambi, M. A., & Ennis, L. (2004). Reconsidering vicarious trauma: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ts' limitations. *Journal of Trauma Practice, 3*(2), 1-21.

Kafetsios, K. (2004). Attach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abilities across the life cours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1), 129-145.

Karstoft, K. I., Armour, C., Elklit, A., & Solomon, Z. (2015). The role of locus of control and coping style in predicting longitudinal PTSD-trajectories after combat exposur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32*, 89-94.

Keenan, A., & McBain, G. D. M. (1979). Effects of Type A behaviour, intolerance of ambiguity, and locus of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stress and work-related outcome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2*(4), 277-285.

Kim, S. H., Kim, C. D., & Sherry, A. (2004). *Adaptation of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scale into Korea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item response theory approaches*. Seoul: Seoul National Univ.

Kramer, A. D., Guillory, J. E., & Hancock, J. T. (2014). Experimental evidence of massive-scale emotional contagion through social network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1*(24), 8788-8790.

Mahamid, F. A,. & Berte, D. Z. (2020). Portrayals of violence and at-risk populations: Symptoms of trauma in adolescents with high utilization of social media.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18, 980-992.

Martel, C., Pennycook, G., & Rand, D. G. (2020). Reliance on emotion promotes belief in fake news. *Cognitive Research: Principles and Implications, 5*, 1-20.

Mawson, A. R. (2005). Understanding mass panic and other collective responses to threat and disaster. *Psychiatry, 68*(2), 95-113.

Mikulincer, M. (1998).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the sense of trust: An exploration of interaction goals and affect 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209-1224.

Mikulincer, M., & Florian, V. (2003). Attachment style and affect regulation: Implications for coping with stress and mental health. In R. Brown & S. Gaertner (Eds.),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Interpersonal processes* (pp. 535-557). Hoboken, New Jersey: Blackwell publishing.

Mikulincer, M., Gillath, O., Halevy, V., Avihou, N., Avidan, S., & Eshkoli, N. (2001). Attachment theory and reactions to others' needs: Evidence that activiation of the sense of attachment security promotes empathic responses. *Journal of*

www.kci.go.k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205-1224.

Mikulincer, M., Shaver, P. R., & Solomon, Z. (2015). An attachment perspective on traumatic and posttraumatic reactions. In M. P. Safir, H. S. Wallach, & A. S. Rizzo (Eds.), *Future directions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revention, diagnosis, and treatment* (pp. 79 - 96). *Springer US*.

Mikulincer, M., Shaver, P. R., & Horesh, N. (2006). Attachment Bases of Emotion Regulation and Posttraumatic Adjustment. In D. K. Snyder, J. Simpson, & J. N. Hughes (Eds.), *Emotion regulation in couples and families: Pathways to dysfunction and health* (pp. 77-9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Mallinckrodt, B., & Wei, M. (2005).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358-367.

Martel, C., Pennycook, G., & Rand, D. G. (2020). Reliance on emotion promotes belief in fake news. *Cognitive Research: Principles and Implications*, *5*, 1-20.

Najavits, L. M. (2007). *Seeking Safety: An evidence-based model for substance abuse and trauma/PTSD*. In K. A. Witkiewtz. & G. A. Marlatt *Therapist's guide to evidence-based relapse prevention* (pp. 141-167). Cambridge, Massachusetts: Elsevier Academic Press.

Najavits, L. M. (2009). Psychotherapies for trauma and substance abuse in women: review and policy implications. *Trauma, Violence, & Abuse, 10*(3), 290-298.

Palm, K. M., Polusny, M. A., & Follette, V. M. (2004). Vicarious traumatization: Potential hazards and interventions for disaster and trauma workers. *Prehospital and Disaster Medicine, 19*(1), 73-78.

Parcon, A. M. C. (2017). Anxiety-Attachment, Avoidance-Attachment and Gender as Predictors of Empathy. *Philippine Journal of Psychology, 50*(1), 77-102.

Read, D. L., Clark, G. I., Rock, A. J., & Coventry, W. L. (2018). Adult attachment and social anxiety: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PLoS ONE, 13*(12), e0207514. doi: 10.1371/journal.pone.0207514.

Schuster, M. A., Stein, B. D., Jaycox, L. H., Collins, R. L., Marshall, G. N., Elliott, M. N., . . . Berry, S. H. (2001). A national survey of stress reactions after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45*(20), 1507-1512.

Schlenger, W. E., Caddell, J. M., Ebert, L., Jordan, B. K., Rourke, K. M., Wilson, D., . . . Kulka, R. A. (2002). Psychological reactions to terrorist attacks: findings from the National Study of Americans' Reactions to September 11. *JAMA, 288*(5), 581-588.

Scott, S. L., Carper, T. M., Middleton, M., White, R., Renk, K., & Grills-Taquechel, A. (2010). Relationships among locus of control, coping behaviors, and levels of worry following exposure to hurricanes. *Journal of Loss and Trauma, 15*(2), 123-137.

Shaver, P. R., & Mikulincer, M. (2020). 14 Attachment theory: I. Motivational, individual-differences and structural aspects. *The Cambridge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 (pp. 228-246). Cambridge University Press.

Slone, M., Shoshani, A., & Baumgarten-Katz, I. (2008). The relation between actual exposure to political violence and preparatory intervention for exposure to media coverage of terrorism. *Anxiety, Stress, & Coping, 21*(3), 243-261.

www.kci.go.kr

Solomon, Z., Mikulincer, M., & Benbenishty, R. (1989). Locus of control and combat-relat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intervening role of battle intensity, threat appraisal and coping.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2), 131-144.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2), 173-180.

Stevens, F. L. (2014). Affect Regulation Styles in Avoidant and Anxious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12*(3), 123-130.

Suvak, M., Maguen, S., Litz, B. T., Silver, R. C., & Holman, E. A. (2008). Indirect exposure to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does symptom structure resemble PTSD?.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1*(1), 30-39.

Wei, M., Vogel, D. L., Ku, T. Y.,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1), 14-24.

Wei, M., Russell, D. W.,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social self-efficacy, self-disclosure, loneliness, and subsequent depression for freshman colleg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602-614.

Wilkerson, K. (2009). An examination of burnout among school counselors guided by stress-strain-coping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7*(4), 428-437.

Woodhouse, S., Ayers, S., & Field, A. P.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 meta-analysi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35*, 103-117.

Zimering, R., Gulliver, S. B., Knight, J., Munroe, J., & Keane, T. M. (2006).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disaster relief workers following direct and indirect trauma exposure to Ground Zero.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9*(4), 553-557.

원고접수일: 2023년 10월 19일
논문심사일: 2024년 3월 4일
게재결정일: 2024년 7월 1일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4. Vol. 29, No. 5, 765 - 785

Effects of Attachment Styles and SNS Emotional contagion on Indirect Trauma: Focusing on the 10.29(Itaewon) Disaster

Jaegwang Choi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aesol Kim
Eunmi Shin
Department of Counseling

Wonyoung Song
Department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Konyang University

The study aimed to identify the link between emotional contagion and indirect trauma that could occur when contacting SNS information related to the Itaewon disaster (10.29) and to seek solutions to problems that could effectively solve indirect trauma.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scale that could measure attachment styles, social media emotional contagion, and indirect trauma caused by the Itaewon disaster. A total of 211 Korean adults were surveyed. According to results of this study, first, anxiety-attachment had significant and positive correlations with SNS emotional contagion and indirect trauma. However, avoidance-attachment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SNS emotional contagion, although it was unrelated to indirect trauma. Second, anxiety-attachment increased the level of indirect trauma through SNS emotional contagion, while high avoidance-attachment decreased the level of SNS emotional contagion and indirect trauma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mediating effect of SNS emotional contagion according to attachment styl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dividuals with a high anxiety-attachment style are more likely to be emotionally contagious after encountering a traumatic event through SNS and eventually experience indirect trauma.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avoidance-attachment, it means that the level of SNS emotional contagion and indirect trauma can be lowered by avoiding related emotions even when contacting trauma through SNS.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 basis to provide prevention and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 for indirect trauma not only for those who have contacted the Itaewon disaster through SNS, but also for those who have experienced various catastrophic events through SNS.

Keywords: Anxiety-attachment, Avoidance-attachment, SNS emotional contagion, Indirect trauma, 10.29(Itaewon) disaster

www.kci.go.kr

부 록

부록 1. 주요변인과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

	1	1-1	1-2	1-3	2	2-1	2-2	2-3	2-4	3	3-1	3-2	4	4-1	4-2	4-3	4-4
1.애착불안	1																
1-1.애착불안1	.81**	1															
1-2.애착불안2	.71**	.55**	1														
1-3.애착불안3	.98**	.74**	.57**	1													
2.애착회피	.18**	.09	.17*	.17*	1												
2-1.애착회피1	.06	.03	.09	.05	.87**	1											
2-2.애착회피2	-.08	-.11	-.02	-.08	.66**	.58**	1										
2-3.애착회피3	.20**	.10	.21**	.19**	.71**	.53**	.33**	1									
2-4.애착회피4	.26**	.15*	.19**	.26**	.88**	.60**	.44**	.49**	1								
3.정서전염	.38**	.32**	.26**	.37**	-.18**	-.27**	-.23**	-.12	-.04	1							
3-1.부정정서	.45**	.32**	.28**	.46**	-.06	-.17*	-.15*	.01	.05	.86**	1						
3-2.긍정정서	.24**	.24**	.18**	.22**	-.23**	-.30**	-.24**	-.18**	-.08	.92**	.60**	1					
4. 간접외상	.32**	.22**	.09	.35**	-.08	-.16*	-.17*	-.06	.03	.55**	.57**	.41**	1				
4-1.대응	.31**	.21**	.10	.34**	-.11	-.21**	-.21**	-.10	.06	.52**	.54**	.39**	.90**	1			
4-2.증상	.19**	.13	.04	.21**	-.17*	-.20**	-.15*	-.12	-.10	.39**	.38**	.31**	.82**	.68**	1		
4-3.불신	.32**	.23**	.10	.35**	.09	.04	-.03	.15*	.11	.30**	.37**	.19**	.72**	.49**	.47**	1	
4-4.가해자	.21**	.13	.06	.24**	-.05	-.09	-.08	-.06	.03	.54**	.56**	.42**	.82**	.63**	.56**	.58**	1
평균	56.48	5.09	9.94	3.45	67.66	3.74	4.40	3.39	3.75	38.47	16.19	20.93	48.12	17.44	8.85	8.73	7.17
표준편차	18.85	2.79	3.71	1.19	16.62	1.02	1.34	1.27	1.12	10.75	5.87	6.05	14.60	7.42	4.13	3.45	3.64
왜도	0.18	0.76	0.40	0.13	0.19	0.59	-0.16	0.28	-0.01	0.15	0.73	0.11	-0.24	-0.48	-0.38	-0.22	0.11
첨도	-0.59	-0.47	-0.61	-0.52	-0.28	0.27	-0.59	-0.72	-0.70	-0.55	-0.13	-0.30	-0.40	-0.25	-0.59	-0.25	-0.41

주. $^{*}p<.05$, $^{**}p<.01$.

www.kci.go.kr